

# 65세 이상 스님 연금지급 추진

## 조계종, 수익사업기반 중단재정확대...대책팀 구성

조계종이 세남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연금 지급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31일 총무부장 무관 스님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승려노후연금제도 운영 방안을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중단 재정확대사업도 착수단계에 놓여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조계종 총무원이 31대 총무원 출범 3년차를 맞아 승려노후복지, 종법령 제·개정, 국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승려노후복지 대책팀은 기획국장을 비롯한 중단 관계자 5명과 외부 전문가 2인을 포함 총 10명 이내로 구성했다. 대책팀은 세남 65세 이상

의 스님 1173명 중 분말사 주지나 법인이사, 강원 강사급 이상 등 각종 유급 소임자를 제외한 뒤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책팀은 확정 인원수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한 뒤, 실시되고 있는 보험사업을 비롯해 통신사업, 부동산 산신타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검토한다. 또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승려노후복지특별회계로 점차 전환시킬 예정이다.

대책팀은 3월 말 기초 데이터를 취합해 4월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워크숍(또는 공청회)을 개최한다. 6월에는 실행계획을 만든 다음 11월 대상자제를 선정·계약하고 담당부서를 선정한다. 기획국장을 팀장으로 한 종현·종법 개정 실무팀은 6월 초 워크숍

을 진행한 후 7·9월 임시중앙총회에 '법인관리법' '사찰예산회계법' 등 사찰관련 법안과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신도법' 등 사회·포교분야 법안, '징계법' '승려법' '종무원법' 등 종풍진작 법안을, 11월 정기중앙총회에 '승려교육제도 개선안' 관련 법안 '선거제도 정비 법안'을 상정·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법령개정팀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

종 국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단 산하 전통신사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종책 대안 의견 수렴 장구 다변화를 위해 조계종 홈페이지 내 종책개선 및 법령 제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장구를 개설했다. 또 교구본사 기획국장 회의와 총무원장스님 이하 전체 교역직·일반직 종무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연찬회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은 2003년 구성된 대정부정책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4급 승가고시 443명 합격

조계종 비구니(내) 법계 품수를 위한 4급 승가고시에 443명(96.3%)이 합격했다. 3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올해 4급 승가고시는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460(사미 249명, 식차마나니 211명)명이 응시했으며, 사미 241명, 식차마나니 202명이 합격했다.

## 12일 포교 총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이 제1차 포교정책 연찬회 '사이버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4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미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교와 그 방향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교사이트 이용자들의 실행활동과 대안 모색 등이 발표된다. 김지연 기자

## “불사의혹 있다면 공개할것”

### 법장스님 ‘승풍확립...’ 담화문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최근 중단 주변에서 불사와 관련해 중단 일부에서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중단법에 의거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납입이 중도 여러 분께 공지해 드릴 예정”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총회의원 영담 스님은 3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가계산서가 입찰 이전에 유출됐다. 선수금을 편법으로 지급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과정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올해 조계종 주요 사업 등이 담긴 ‘승풍 확립과 투명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만약 중앙총회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면 공동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법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소수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에 따라 무책임한 폭로와 질책을 무시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사부대중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우 기자

## 전통사찰 영문 홈페이지 문열어

### 30여 대표사찰 소개, 관광·법문등 콘텐츠 다양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3월 28일 전통사찰 영문홈페이지(eng.koreatemple.net)를 공식 오픈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정보화사업팀이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에 들어가 작업한 전통사찰 영문홈페이지는 한국불교, 불교문화, 불교축제와 의식, 사찰과 여행, 유용한 정보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한국불교 코너는 한국불교 탐구에 서부터 역사와 특징, 문화 등 한국불교 전반을 다루고 있다. 불교문화에서는 사찰예절에서부터 음악 무용 불화 등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

를 제공한다. 연등축제 폐불제 영산재 예수재 등 불교 축제와 의식도 사진과 함께 한자리에 모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사찰을 선정해 사찰 소개와 더불어 관광팁, 성보문화재 가람배치, 갤러리 등을 제공한다. 테마별 불교여행 코너도 마련해 테마순례 코스 및 볼거리 안내와 일반적인 여행팁, 템플스테이 자료 등도 서비스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영문 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중국어 일본어 사이트, 내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 사이트도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한 18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3월3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품수식에 참석한 뒤 한 자리에 모였다.

## “불국정토 이루는데 신명 바치리”

### 태고종 원로 18명 ‘대종사’ 품수

태고종 원로의원 18명이 3월 30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품수식에서 승정원장

## 우리말 법요집 출간

### 천도·다비의식 등 담아

신행활동의 필수요소인 천도·다비 등의 의식을 우리말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법요집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사찰별로 각각 진행해 온 한글의식을 통일하고, 불교의식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한글 통일법요집 I - 천도·다비의식>을 발간했다. 지장불교(地藏佛供)과 관옥(灌浴)

등을 담은 ‘천도의식’ 편과 수계(授戒), 발인(發引) 등을 정리한 ‘다비의식’ 편으로 구성된 법요집 I 권은 목탁과 요령 집전 방법은 물론 대중의 행동요령과 영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일반시민들도 불교의식에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요집 I 권은 특히 조계종 차원에서 발행된 최초의 한글 통일법요집이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한글 보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남과,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원법, 원로의원 정경 해봉 지족 보안 벽파 해종 남호 법장 덕화 자광 용수 행법 청은 해암 도운 스님이 대종사 법계 증서를 받았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 법을 이은 대종사들은 종단의 사표이자 한국불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통도사 방장 후보 선출

### 20일 산중총회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가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4월 20일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4월 10~12일 까지이며, 구성원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는 4월 15~17일까지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 독도문제 불교교류에도 ‘영향’

###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성과없는 만남’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주최로 3월 28일 도쿄 류텐지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추모 및 유골환국기원 법회에서 법장 스님이 추모사를 하고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교교류까지 불뚱이 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인 희생자 영령 추모위원회 및 유골환국기원 법회를 공동 개최하기 위해 3월 28일 도쿄 류텐지에서 만난 한일불교계 대표단 200여명은 성과 없는 만남을 가져야 했다. 법회는 원만하게 열렸지만 이어 진행하려고 했던 유골환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고, 한일 공동 기자회견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한일불교계를 냉각시킨 요인은 바로 독도문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법장 스님이 ‘시마네현이 지정한 ‘독도의 날’ 제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 당초 한일불교계가 서로 합의된 사항이었지만 일본 기자들이 불참한 한국기자들만 참석한 간담회로 만족해야 했다. 이와 관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독도 등 정치관련 현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일본불교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한 관계자는 “방일 전 일본에 독도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얘기를 홍보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뒀음에도 워낙 양국의 민감한 사안이 있다보니 종교적인 만남에도 쉽지 않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 (02)737-8881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대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을 보기전에는 까르마(업)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애 지어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전생을 읽는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박진여씨가 자기최면투시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리딩해 주었던 사례별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과 불행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동방파도명상연구소 02)996-6156 05)11817-6156

고요이집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에드가 케이지에 못지않은 놀라운 리딩능력의 소유자 박진여의 최면투시!

2년 전 부산에서 있었던 어느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윤곽을 대략 파악했지만 그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리딩을 부탁해 왔다. 경찰에서 준비해온 10명의 사진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범인을 제외한 얼굴 사진은 모두 수사관들이었는데, 경찰관들이 리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일부러 범인 얼굴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진여씨는 명상에서 깨어나 자기 눈앞에 펼쳐진 10명의 사진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얼굴을 지목했다. 그 예상 밖의 행동으로 진여씨를 아는 주위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고 반대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탄성을 내지 않으면서 신기해했다.

그 두사람은 형제간으로 수사관들은 이미 두 사람을 주범과 증범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